

#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가계의 도원관(桃源觀)과 진경산수의 관련성

---

임희숙

명지대학교 박사 졸업, 미술사 전공

syin3@naver.com

---

- I. 머리말
  - II. 김상헌 가계의 도원관
  - III. 진경산수에서 구현한 도원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4198).

## I. 머리말

---

조선시대 문인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주자나 소식이 지녔던 도가적 속성을 이어받았고, 주자의 가르침 안에서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무릉도원을 이상세계로 지향했다. 문인들의 도원관은 조선 초에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감상하고 쓴 제찬문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sup>1</sup> 이후, 16세기에 들어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도가(武夷權歌)」를 중심으로 한 도원 담론이 이어졌다.<sup>2</sup>

김상헌(1570-1652)은 병자호란 당시 대표적인 척화파로,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충절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인물이다.<sup>3</sup> 김상헌 가계의 절의와 예술취향 그리고 학문은 후손으로 이어져, 손자인 김수흥(金壽興, 1626-1690)과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은 노론의 중심을 이끌었고, 증손자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김창흠(金昌翕, 1653-1722)은 백악사단을 이끌며 조선 후기 문단의 새로운 학풍을 만들었다. 김상헌은 서인계 문인들이

- 
- 1 <몽유도원도> 제찬문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 등이 있다. 김은미, 「몽유도원도 제찬의 도원관 연구」, 『이화여문논집』 권10호(1988); 고연희, 「몽유도원도 제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 이형대, 「15세기 이상향의 풍경과 체험방식: <몽유도원도>와 그 제찬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7집(2000); 허용, 「朝鮮時代 桃源圖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홍선표, 「<몽유도원도>의 창작세계: 선경의 재현과 고전산수화의 확립」, 『미술사논단』 제31호(2010).
  - 2 이민홍, 「武夷權歌」 수용을 통해 본 士林派文學의 一樣相: 退溪, 河西, 高峯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제6집(1982); 심경호, 「朱子 『齊居感興詩』와 『武夷權歌』의 조선판본」, 『서지학보』 제14집(1994); 강정서,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동방한문학』 제17집(1999); 신두환, 「조선 士人の 「武夷權歌」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大東漢文學』 제27집(2007); 김영봉, 「조선조 武夷權歌에 대한 평가와 次韻詩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62호(2018) 참고.
  - 3 김상헌의 형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하였고, 김상헌은 1640년 심양에 구금되었다가 1645년에야 돌아왔다.

주장했던 ‘현실에서 도원을 찾는’ 도원 인식을 지녔으며, 그 후손들 역시 김상헌의 도원인식을 계승하였다. 이 글에서는 서인 노론계 문인들이 주장했던 주희의 「무이도가」 제9곡 시의 해석을 중심으로 도원담론을 서술하고, 김상헌 가계의 문인들이 지닌 도원관을 살펴볼 것이다. 김상헌과 후손들이 남긴 시문을 중심으로 도원관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조선의 산수가 지닌 이상적인 미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부른다. 진경산수화풍을 창시한 정선과 김상헌의 증손인 김창흡 문인들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도원관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다. 진경산수화풍의 발생과 형성에 관련된 여러 요인 중에 김상헌 가계의 도원관이 관련 있음을 확인하고 진경산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sup>4</sup>

## II. 김상헌 가계의 도원관

### 1. 16-17세기 도원 담론의 전개

- 4 진경산수화풍의 형성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성리학적 배경을 강조하는 경우와 실경산수화의 전통에 남종산수화풍을 수용하여 창작되었다는 견해, 조선후기 산수 유람의 유행으로 지도의 제작과 기행사경도의 제작이 활발해졌다는 점 등이 있다. 필자는 문인들의 도원관이 진경산수화풍의 다양한 형성 배경 중 한 가지였음에 주목하였다. 이 글에서 참고한 진경산수화풍의 발생과 형성에 관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최완수, 『겸재정선 진경산수화』(범우사, 1993); 박은순, 『金剛山圖 研究』(일지사, 1996); 이태호, 『조선후기회화의 사실정신』(학고재, 1996);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일지사, 2001); 최완수 외, 『진경시대』 1·2(돌베개, 2003); 안휘준, 「겸재 정선(1676-1759)과 그의 진경산수화,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학보』 제214호(2012); 박은순, 「朝鮮 後期 官僚文化와 眞景山水畫: 소론계 관료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제27집(2013); 정은주, 「겸재 정선의 신분과 화풍 형성에 대한 소고」, 『예술논집』 제14집(2014); 고연희, 「겸재 정선, 그 명성의 근거 검토」, 『대동문화연구』 제109집(2020).

조선 중기, 주자의 「무이도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sup>5</sup> 주자는 1183년에 복건성에 있는 무이산에 정사를 짓고 강학을 하였고, 이듬해에 배를 타고 무이구곡(武夷九曲)의 아홉 구비를 유람하며 「무이도가」 10수를 지었다. 「무이도가」에 대한 가장 주된 논쟁 중 하나는, 주자가 무이구곡을 유람하고 썼다는 1곡부터 9곡까지의 여정이 도학의 방편을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수 유람의 흥취를 쓴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논쟁은 제9곡 시에 관한 것으로, 시에 등장하는 ‘도원’과 ‘별유천’이 인간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었다. 이 글에서는 제9곡 시에 대한 담론을 대상으로 김상헌 가계 문인들의 도원관에 주목했으므로, 서인계 문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9곡에 다다르니 눈앞이 확 트여서  
 이슬 젖은 뽕나무와 삼, 평천이 보이네  
 어부는 다시 도원 가는 길을 찾으나  
 모름지기 인간세상의 별천지로구나<sup>6</sup>

1560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무이산부(武夷山賦)」가 원나라 진보(陳普, 1244-1315)의 주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에 불만을 느꼈다. 김인후는 제9곡 시의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이 다시 도원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하였고 때문이다.<sup>7</sup> 이황은 김인후의 글을 읽은 후, 기대승(奇大升, 1527-1572)에게

5 이후 본문에서 주희는 주자(朱子)로 칭하겠다.  
 6 주자, 『朱子全書』 권9, 「武夷權歌 十首」 중 9곡 부분. “九曲將窮眼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7 김인후, 『河西集』 권1, 「武夷山賦」. “奄既窮乎九曲兮 見桑麻之平川 豈桃源之別求兮 寤眞境之在前 仰穹蒼而無愧兮 俯厚載而何忤 獨超然而先覺兮 卓所立之可樂”. 이하 이 글에서

의견을 묻게 되면서 퇴계와 고봉 간에 담론이 시작되었다.<sup>8</sup> 그 내용은 어부가 찾아가려는 ‘도원’이 형이상학적인 처소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의미의 처소인가에 대한 기대승의 생각을 묻는 것이었다. 즉, 마지막 풍광이 다하는 9곡에 이르러 보이는 평범한 인간 세상을 도원이라고 수궁할 것인지, 더 나아가야 할 궁극의 도원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였다. 이황은 9곡을 지나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여, 세상 밖 별유천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데, ‘상마우로(桑麻雨露)’의 경치는 승경이 다한 곳이므로 또 다른 진경을 품은 도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sup>9</sup>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처소를 도원으로 상정한 서인계 문인들은, 어부가 다시 도원 가는 길을 찾지만, 바로 여기가 인간세상의 별천지라고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은 제9곡 시의 ‘除是’를 ‘除是非’로 해석하여, 어부가 다시 도원을 찾더라도, 여기가 인간세상의 별천지임을 시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sup>10</sup> 이이에게 자연에서의 흥취는

---

인용한 문집의 원문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 DB를 참고로 하여 필자의 교정을 거쳤음을 밝힌다.

- 8 이황은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인후 문하에 있던 卞成溫이 이황을 찾아와 김인후의 「武夷律詩」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무이도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기대승, 『兩先生往復書』참고.
- 9 이황, 『退溪集』 권13, 「答金成甫德鵬 別紙 癸亥」. “……而九曲一境 山盡川平而已 素號此處別無勝絕 殆令遊興頓盡處 故詩前二句直敘所見 而末二句意 若曰勿謂抵此境界爲極至處 而須更求至於眞源妙處 當有除是泛常人間 而別有一段好乾坤也云云”. 이황이 9곡 시를 해석하는 도원의식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이황의 문인들에게 이어졌다. 강정서, 「퇴계의 <무이도가> 시 인식의 한 국면: 제9곡시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14집(1998); 최석기, 「무이도가 수용양상 및 도산구곡시의 성향」, 『퇴계학논총』 제23권(2014) 참조.
- 10 김장생, 『沙溪全書』 권19, 「論致知」. “〈除非〉, 栗谷曰 除是非之謂也 龜峯云 朱子詩除是人間別有天亦如此意也”. 이이는 ‘除非’란 말은 除是非를 말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시비를 가릴 것도 없다는 뜻이며, 구봉 송익필도 주자의 시 ‘除是人間別有天’ 역시 이 뜻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송익필의 말에 이이의 뜻을 담으면, 인간

『논어(論語)』의 「선진(先進)」에 나오는 ‘욕기영귀(浴沂詠歸)’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된다.<sup>11</sup> 이이는 ‘욕기영귀’의 기상을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성정을 수양하는 단계로 인식하였다.<sup>12</sup> 문인들은 도의 유행을 체득하는 차원의 ‘욕기영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고, ‘욕기영귀’를 행할 수 있는 산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찾았다.<sup>13</sup>

서인이었던 조익(趙翼, 1579-1655)의 제9곡 시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은 여기가 바로仙境(仙境)의 극치인데, 만약 유람하는 자가 그 평범함이 싫어서 다시 도원을 찾는다면 잘못이라는 말이다. 학문을 공부하는 자가, 도는 일용지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기이하고 특별한 일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除是’는 ‘唯是’와 같은 말이라서 오로지 인간 세상에 별천지가 있다는 것이고, 찾아갈 만한 도원이 있다는 것은 이치가 없는 말이니, 대개 이단의 학문과 그 허망함을 가리키는 것이다.<sup>14</sup>

---

세상에 별유천이 있음은 시비를 가릴 것도 없이 맞는다는 말이 된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송익필과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이의 성리학파 송익필의 예학을 받아들여 율곡학과와 서인의 중주가 된 인물이다.

- 11 주자는 “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少欠闕”으로 시작되는 해석을 달았다. 즉 증점의 학문은, 인욕이 사라진 곳에 천리가 유행하여 늘 충만하고 모자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주자, 『論語集註』, 「先進」 참고.
- 12 李珣, 『栗谷全書』 권13, 「平遠堂記」. “昔者 曾皙浴沂詠歸 而夫子深與焉 朱子遇一樹稍清陰處 必嘯詠徘徊而不能去 此徒外境之爲樂哉 將以外境助養吾心爾”
- 13 조민환, 「증점의 ‘욕기영귀’에 대한 조선조 유학자들의 견해와 수용」, 『동양예술』 제47권(2020), 27쪽.
- 14 조익, 『浦渚集』 권22, 「武夷權歌十首解」.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言此是仙境極處 若遊者厭其平常 而更求桃源則失之矣 如學道者謂道不在日用間 欲求爲奇特之事 則去道遠矣 除是 猶言唯是也 唯是人間有別乾坤 乃有桃源可覓處 言其無此理也 蓋指異端之學而言其虛妄也”

조익은 김인후의 주장을 이어가면서, 인간 세상 밖에서 도원을 찾는 일은 도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이단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조익의 성리학적 도학주의와 도원 인식은 서인 학맥을 중심으로 이어져 갔다.<sup>15</sup> 17세기 서인 노론계의 중심이었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도 같은 해석을 하였다.

대개 일상의 이치로부터 묘리가 나온다는 것은, 쓸모없는 법 중에 살아있는 법이 저절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도원도 단지 구곡 중에 있을 것이니, 별도로 찾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도 ‘豁然’이라고 말한 것은 학문의 도를 논한 것으로, 온갖 이치가 다 밝혀져 하나의 흠결도 존재하지 않은 이후인 것입니다. 여기를 버리고 별도의 경치를 구하는 것은 이단이며 벽술이니, 성현의 올바른 도가 아닙니다. 또 ‘비인간별유천’은 이보다 더 좋은 경치가 없다는 것이니, 어찌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혼자 누추하고 알뜰하게 감히 선현의 득과 실을 논해 본 것이니, 속죄할 수 없는 죄일 것입니다. 원하건대 곡운노장께서는 잘 가려 봐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sup>16</sup>

이 글의 말미에 나오는 ‘곡운노장’으로 보아, 김상헌의 손자인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에게 준 글임을 알 수 있다.<sup>17</sup> 이이와 송익필,

15 조익은 이이·성혼·윤근수·김장생과 직간접적으로 사승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조익은 서인의 주류 학맥을 모두 계승하고 있다. 김준태, 『포저 조익의 성리학설과 경세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18-19쪽.

16 송시열, 『宋子大全』 권134, 『論武夷權歌九曲詩』. “…… 蓋曰常理之中 自有妙理 死法之中 自有活法之意也 若是則桃源 只在此曲中間 不待別求也 蓋既曰豁然 則以學問之道論之 是萬理明盡 一疵不存之後也 舍是而別求他境 則是異端僻術 而非聖賢大中至正之道也 [...] 且非人間別有天則是無上好境界也 豈可使人莫往也 然以孤陋淺見 敢論先賢得失 罪不可贖 只願谷雲老丈試賜裁擇 而勿以語人也”

17 김상헌의 손자인 수증은 1675년부터 1680년까지 화천의 곡운에서 은거를 하였는

김인후와 조익 등 서인계 문인들과 김수증과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노론계 문인들은 현실적 도원을 추구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 2. 김상헌의 도원 인식과 후손들의 계승

장동 김문(壯洞 金門)으로 불리는 김상헌의 가계는 증조부 김번(金璠, 1479-1544)이 말년에 서울 장의동에 거주하면서 청풍계에서 장의동에 이르는 지역을 확실한 세거지로 삼게 되었다.<sup>18</sup> 김상헌은 16세에 윤근수(尹根壽, 1537-1616)에게 나아가 공부를 하였고, 윤근수의 문집 『월정집(月汀集)』의 발문을 쓰기도 했다.<sup>19</sup> 1566년 윤근수가 서장관으로 북경을 방문했을 때, 양명학자인 육광조(陸光祖, 1521-1597)와 벌인 주륙논란(朱陸論難)은 당시 문인들의 큰 관심을 가져왔다.<sup>20</sup> 두 사람이 나눈 여러 논쟁 중에 「무이도가」의 제9곡 시에 관한 문답이 있다.

구곡도가의 마지막 장에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에서 ‘除是人間別有天’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데, 1683년에는 송시열의 문인들과 「무이도가」에 대한 답론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16-17세기 도원 담론에 관해서는 임희숙, 『조선 중기 문인들의 회화관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12-27쪽 참고.

- 18 이때부터 壯洞 金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장동 김문에 대해서는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참고.
- 19 김상헌은 윤근수 이외에도 신흙(申欽), 이정구(李廷求), 유근(柳根)의 문하를 노닐었고, 홍서봉(洪瑞鳳), 이안눌(李安訥), 조희일(趙希逸), 장유(張維) 등과 공부하며 어울렸다. 김상헌, 『청음집』 序, 「淸陰草稿自序」 참고.
- 20 1566년 윤근수가 서장관의 신분으로 북경을 방문했을 때 국자감학정이던 陸光祖(1521-1597)와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하여 벌인 논변이다. 이 논변이 조선에 양명학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윤근수, 『월정집』 별집 권1, 「朱陸論難」 참조.



[...]

‘除是人間別有天’은 인간 세상에 별도의 하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 별도의 하늘이 없다는 것은 하늘이 인간 세상에 있다는 것이니, 도원 가는 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얇은 소견이 이와 같고 또, 선인의 뜻을 서술한 것도 아니니만큼, 다행스럽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sup>21</sup>

윤근수는 「무이도가」 마지막 수에 나오는 ‘제시인간별유천(除是人間別有天)’에 대한 양명학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이다. 육광조는 인간 세상에 별도의 하늘이 없다는 말로서, 하늘이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의 주류논란은, 양명학을 이단시했던 조선의 문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다양한 사유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2</sup> 윤근수의 「주류논란」을 읽었을 김상헌에게 있어서, 「무이도가」 제9곡 시에 관한 논의는 도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문인들은 산수를 유람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성정을 수양하였고, 실재하는 경치에 섭리를 담으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23</sup>

1631년 예조판서이었던 김상헌은 영흥부에서의 봉심(奉審)을 끝내고

---

21 윤근수, 『월정집』 별집 권1, 「朱陸論難」, “九曲權歌卒章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所謂除是人間別有天 何謂歟 [...] 除是人間別有天 謂人間無別天也 人間無別天則天只在人間 何必更覓桃源路也 淺見如此 亦無所祖述 幸理會何如” 이하 본문에서 진한 한자는 필요에 의해 필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임.

22 윤근수의 문인이었던 김상헌·조익(趙翼, 1579-1655)·장유(1587-1638)는 모두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던 문인으로 알려졌으며, 윤근수의 서장관으로 사행을 다녀왔던 신희(1566-1628)은 스스로 왕양명을 좋아한다면서 왕양명을 진유(眞儒)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양명학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던 문인들이 ‘별유천’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3 도원 인식이 진경을 향한 욕구의 내재적 요인이었다면, 16세기 후반 이후 산수 유람의 증가와 17세기 초 중국의 실경산수관화집의 유입과 명말청초 산수기행문학에 대한 관심 등은 외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문예의 수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고연희(2001), 앞의 책, 63-73쪽 참고.

오는 길에, 철원에 들러 김훤(金煥, 1572-1653)을 만나 삼부연 폭포를 바라보며 시를 남겼다.

듣자하니 영험한 소(沼)의 위쪽에  
세상을 피해 숨어든 마을이 있다고 하네  
평생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골짜기 마을은 별도의 한 세상[別乾坤]이라네  
황(黃)과 기(綺)의 고상한 풍모는 아니라도  
주(朱)와 진(陳)의 옛 풍속은 있다네  
집터를 주어 나를 살게 한다면  
어찌 굳이 도원을 찾겠는가<sup>24</sup>

김상헌의 시는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떠오르게 한다. '별건곤(別乾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평범한 백성들일 것이라고 하면서, 누가 집터라도 내어 준다면 그곳을 도원으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김상헌은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난세를 피한 사람들처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을 도원으로 상정하였다. 김상헌은 병자호란 이후 1640년 심양으로 끌려가 억류되었을 때, 임타(林瑞, 1593-1664)에게 준 편지에서도 난세 속에 살 곳을 도원이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그대가 먼저 선수를 쳐서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에서 세속의 번잡을 다스리라 했지  
태평 시절 오면 시골 늙은이가 되어 살고

---

24 김상헌, 『청음집』 권4, 「鐵原府伯金正卿言 三釜落水窮處有一村 眞避亂之地 路險不得到 悵望賦之 正卿名履」. “聞道靈湫上 深藏避世村 生涯自耕鑿 洞府別乾坤 黃綺高風遠 朱陳舊俗存 一塵容我住 何必問桃源”

난세에는 함께 도원(桃源裏)에 살자고 했네<sup>25</sup>

또 명나라 화가 구영(仇英, ?-1552)이 그린 산수도에 부친 제시에서는 '무릉도원'과 '극락'을 번갈아 제시하고 나서, 자신은 그저 골짜기 오두막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노래했다. 육신의 고단함을 떠나 살 곳을 골짜기에 있는 오두막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선산과 불국토가 여기인가 아니런가  
생각하면 오두막이나 있는 골짜기나 하나 사서  
이 한 몸 편안하고 처자식이 즐거워서  
대대로 왜놈 되놈 모르고 살면 좋겠네<sup>26</sup>

다만, 김상헌이 인식한 도원은 서인계 문인들의 현실적인 도원 인식에서 출발하였지만, 구체적인 도원관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김상헌은 초월세계를 지향하기보다는 실제로 실현가능한 도원, 즉 평화롭게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산수를 도원이라고 인식했다고 이해된다.

서인 논문의 핵심이었던 김상헌의 후손들은, 19세기 초에는 최대의 세도가문을 이루었다. 절의의 상징이 된 가문은, 후손들이 조선 최고의 관직에 올라 숙종 연간 핵심 정치권력이 되고, 조선 후기 문예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배경이 되기에 충분했다. 김상헌은 후사가 없어 형인 김상관(金尙寬)의 아들 광찬(光燦, 1597-1668)을 후사로 삼았다. 광찬에게서 얻은 세 아들은 수증·수홍·수항이었다. 삼 형제 중, 수항에게서 난 증손자인 창집(昌集)·창

25 김상헌, 『청음집』 권13, 「我謂君侯先着鞭 爲我佳處煩料理 時平永爲田舍翁 世亂共住桃源裏」. “我謂君侯先着鞭 爲我佳處煩料理 時平永爲田舍翁 世亂共住桃源裏”

26 김상헌, 『청음집』 권13, 「題仇英山水圖」. “……昏昏默默度朝暮 此時偶然見此圖 使余感慨增歎歎 嗚呼仙山佛國是歟非歟 安得買山一曲寄草廬 寧爾驅樂爾孥 世世不識南倭與北胡”

협(昌協)·창흠(昌翕)·창업(昌業)·창준(昌緝)·창립(昌立) 등 여섯 형제는 육창(六昌)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sup>27</sup> 육창 형제들은 증조부인 김상헌과 백부 김수증 그리고 부친 김수항을 이어 조선 후기의 문예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장동 김문의 후손들은 당연히 김상헌의 사상과 처세를 모범으로 삼았으며, 자연스럽게 김상헌의 도원 인식을 따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김수증은 송시열·이단하·박세채와 「무이도가」 9곡에 등장하는 도원에 대한 견해를 나눈 기록이 있다.<sup>28</sup> 도원의 실재를 평범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원을 찾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른 문인들에게 던졌던 것으로 봐서, 김수증이 도원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 유람의 경로 중에서 한양을 출발하여 도봉을 거쳐 연천과 철원·김화·금성을 지나 단발령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철원을 경유한 문인들의 글에서 삼부연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sup>29</sup> 또, 시문을 남겼다 하더라도

- 
- 27 조선말 학자인 송근수(宋近洙, 1818-1903)가 송시열의 문집인 『宋子大全』의 일부를 풀어 해석한 『宋子大全隨籥』의 제13권에 송시열과 관련된 문인들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 김수항의 부분에 사람들이 그의 여섯 자식을 ‘六昌’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 28 김수증은 1683년에 송시열의 문인들과 「무이도가」에 대한 담론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이단하(李端夏, 1625-1689), 『畏齋集』 권6, 「與金延之 癸亥」; 박세채(朴世采, 1631-1695), 『南溪集』 권27, 「與金延之 癸亥」 참고. 延之는 김수증의 자이다. 또, 박세채 『남계집』 外集 권10, 「退溪文集記疑疑義 癸亥六月十六日」에는 김수증이 찾아와 무이도가에 대한 퇴계와 고봉의 견해 중에 누가 더 나은가 물었다(昨因金延之來問 武夷棹歌退溪高峯說孰優)는 내용이 있다.
- 29 1485년 금강산 유람기를 남긴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 철원을 지나는 경로를 선택했지만 금강산에 대한 기록에 충실하여 삼부연에 대한 기록은 없다. 허균(許筠, 1569-1618)도 1603년 금강산 유람 중에 철원에 있던 김확의 별장에서 쓴 시가 있으나 삼부연에 갔다는 기록은 없다. 구사맹(具思孟, 1531-1604)의 경우는 철원에 가서 삼부연을 노래했던 시가 있다. 『八谷集』 권2, 「東州十詠次願菴韻」 참고. 송시열의 「연보」에는 1683년 철원을 유람한 후 금강산에 갔다고 했는데, 유창(俞瑒, 1614-1692)의 『秋潭集』 권亨, 「次尤齋相國三釜淵題扇示得兒韻」으로 봐서 송시열은 삼부연

‘도원’을 소재로 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sup>30</sup> 반면에 김상헌의 후손들은 삼부연을 유람하면서 김상헌의 시를 차운하며 ‘도원’을 다시 떠올렸다. 삼부연을 노래한다는 것은 곧 김상헌의 충절을 떠올려 가문의 자긍심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기도 했다. 후손들에게 삼부연은 단순한 절경의 의미를 뛰어넘어, 명문가로서의 장동 김문을 대표하는 김상헌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이다.<sup>31</sup> 그렇기에 대부분의 문인들이 실제 경치를 보고 느낀 감흥을 시로 썼던 것에 반해, 후손들은 ‘도원’에 관련된 단어를 적절하게 변용함으로써 그곳이 김상헌이 말했던 ‘별유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렸을 때부터 조부에게서 수학했던 김수항은 조부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여러 편의 시에서 보여주었다. 김수항은 1664년 함경도 길주에서 열린 별시(別試)의 시관으로 가던 길에, 영흥부에 다녀왔던 조부를 떠올리며 차운하였는데, 조부의 ‘별건곤’을 ‘별유천’으로 변용하면서 김상헌의 도원을 상기하였다.

적막하고 황량한 숲에 석양이 걸리고  
 몇몇 집 울타리가 역참 앞에 있구나  
 산은 맥판진에 이어져 길이 없을까 의심하나

에 다녀왔을 가능성이 있다.

- 30 김상헌 이후에는 많은 문인들이 금강산 유람 시 삼부연을 방문하여 시문 등의 기록을 남겼다. 신동섭, 「조선후기 명승에 대한 사실적 인식의 발전: 장동 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표12> 참고.
- 31 후손들이 삼부연을 유람했던 이유는 김수항의 유배지였던 이유가 컸을 것이지만, 특별히 김상헌을 추승하고자 했던 의도는 주목할 만하다. 김상헌의 족적을 따르고 그 정신을 떠올린 배경에는 명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환기시키려고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인들의 산수기행에는 일관된 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서 유적을 남긴 선조의 이름과 행적을 기억하거나 선조가 남긴 시문이나 시를 떠올려 기록하였다. 고연희(2001), 앞의 책, 25쪽.

땅이 봉래에 가까우니 별천지[別有天]가 있으리<sup>32</sup>

이후 1674년(숙종 즉위년) 갑인예송이 일어난 뒤 김수항은 영암으로 유배를 갔고, 김수증은 성천부사직을 사직하고 강원도 화천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1678년 영암에 유배되어 있던 수항이 철원으로 이배되자, 김수증은 수홍·수항 형제와 조카들을 데리고 삼부연을 유람하였다. 다음은 수증이 쓴 시이다.

구름에 닿은 땅 사이 오솔길  
산은 골짜기의 마을을 나누고  
우리는 좋아하는 일이 같으니  
한 세상[一乾坤] 정토로구나<sup>33</sup>

김상헌이 삼부연 폭포의 암벽 위 어느 곳에, 별도의 한 세상[別乾坤]이 있다고 한 것에 대응하여, 김수증은 하나의 세상[一乾坤]이라고 차운하였다. 굳이 다른 도원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삼부연의 경치를 정토라고 한 김수증의 생각이 읽힌다.

김창흡은 부친이 유배된 철원을 드나들다가 호를 '삼연(三淵)'으로 삼았는데, 김수항이 아들 창흡을 생각하며 쓴 시가 있다.

길은 좁아서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계곡의 궁처에 홀연히 마을이 있다네

32 김수항, 『文谷集』 권2, 「新安途中 伏次先祖爲鏡城通判時過此韻」, “…… 寂寞荒林暮景懸 數家籬落驛亭前 山連麥坂疑無路 地近蓬萊別有天……”

33 김수증, 『곡운집』 권1, 「遊三釜淵 次先祖考韻 贈文谷兼示翁姪」, “地接雲間徑 山分洞裡村 吾人同趣味 淨界一乾坤……”

인간세상은 바람과 햇빛으로 가려져 있으니  
 향아리 속 비밀스런 세상(秘乾坤)이로구나  
 우리 조부가 남기신 시편에 있던  
 이 산은 옛날부터 그대로이네  
 지금 초옥 한 채를 바라보니  
 기쁘게도 네가 진정한 도원(眞源)을 알아줬구나<sup>34</sup>

김수항은 삼부연의 궁처에, 세상을 피해 숨어든 사람들이 산다는 김상헌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굳이 조부가 남긴 시편(吾祖遺篇在)이라고 떠올린 이유는, 조부의 도원 인식을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전해줄 요량으로 보인다. 도원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아들 창흡이 알고 있음을 기뻐하였다. 김수항의 뜻대로 아들 창흡은 삼부연을 유람했던 일을 떠올리며 시로 썼다.

청려장 잡은 부친 앞서거니 뒷서거니 모시고  
 수천 번 휘돌아 온 물길 삼부연을 찾았네  
 소나무 숲에서 객도 없이 술잔을 따르고  
 골짜기 속 구름을 물리치니 별천지(有別天)가 있구나<sup>35</sup>

1680년 남인의 실각으로 김수항이 영의정에 복귀한 해에, 창흡은 철원

- 
- 34 김수항, 『문곡집』 권5, 「在昔辛未年間 先王考以大宗伯 祇役北關 路過豐田驛 聞三釜落水窮處 有村可避地 路險不得到 悵然賦詩以寄興 余少讀王考詩 恨無由一探其勝 未嘗不夢想之也 今適壘居東州 所謂三釜落 卽其境也 翁兒嘗往尋 樂其幽邃 遂結茅爲棲息之所 余亦得以往來遊賞 事苟有不偶然者 撫境興感 自不能已 玆用王考詩韻 書示翁兒」. “峽束疑無路 溪窮忽有村 人間隔風日 壺裏秘乾坤 吾祖遺篇在 茲山夙尚存 今看一茅屋 喜爾卜眞源”
- 35 김창흡, 『三淵集』 拾遺 권1, 「陪遊」. “奉執青藜忽後先 千回渡水訪三淵 松間酌酒無他客 洞裏排雲有別天……”

태화산(太華山)의 다섯 굽이 경치를 노래하였다.

일곡이라 기이도 해라 삼부연  
푸르른 양 벼랑에서 떨어져 날리는 물줄기가  
고운 물모래를 뿜어 깊이 모를 못을 만들어  
돌 빗장을 열면 별천지(洞有天)가 보이네<sup>36</sup>

이후 1689년 기사환국으로 김수항은 진도로 유배된 후 사사되었고, 아들 창협은 백운산 아래 농암(農巖)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창협은 청령포(淸泠瀨)에 새로 지은 정자의 상량문에서, ‘앞이 확 트이고 평활한 것이 곧 무이산 구곡의 뽕밭과 삼밭이다[其豁然而平則武夷九曲之桑麻]라고 하였다.’<sup>37</sup> 창협은 특정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기 좋은 곳을 가리켜 뽕과 삼이 자라는 평활한 곳이라며 주자의 「무이도가」 제9곡 시에 나오는 ‘상마우로견평천(桑麻雨露見平川)’에 비유한 것이다. 이후 창협은 철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난날 부친과 백부 숙부를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했던 삼부연 유람을 떠올렸다.

인생은 헛되고 세월은 아득하지만  
선계의 근원(仙源)은 옛 상마(桑麻) 모습 그대로구나  
다시 온 이 날 얼마나 많은 일 있었던가  
맑은 계곡 다섯 굽이 꽃들 앞에서 눈물짓네<sup>38</sup>

36 김창협, 『삼언집』 拾遺 권1, 「太華五曲詠」, “一曲奇哉三釜淵 碧青雙壁墜飛泉 金沙噴作潭無極 石扃開看洞有天……”

37 김창협, 『농암집』 권26, 「淸泠瀨新亭上梁文」, “…… 乃若山川之美 古來共談 沿瀨則皆綠潭素瀾 顧眄而盡崇峯峻阜 有蔚然而深者 瑯琊諸峰之林壑 其豁然而平 則武夷九曲之桑麻……”

38 김창협, 『농암집』 권4, 「龍華有感」, “人代微茫甲子賒 仙源不改舊桑麻 重來此日無窮事



김창협은 삼부연의 경치를 뽕나무와 삼밭이라고 하여 평범한 인간세상 중에 있음을 말하면서, 김상헌이 '별건곤'이라고 했던 풍광은 '선원(仙源)'이라는 말로 변용하였다. '평생 스스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生涯自耕鑿)' 곳이라고 했던 김상헌의 말처럼, 도원을 평범한 일상이 영위되는 곳으로 본 것이다.

다음은 창흡이 쓴 「존경하는 증조부의 삼부폭포 운에 차운하며」라는 시이다.

새로 엮은 초옥 있는 곳이  
진나라 옛 모습이 남은 마을이네  
복숭아꽃에 세월은 미혹되어  
폭포가 한 세상의 경계로구나[界乾坤]  
겹겹 쌓인 바위에 노니는 사람은 없고  
무성한 물 기운과 늙은 나무만 있네  
아득하게 나의 선조를 생각하니  
일찍이 하나의 참 근원[眞源]을 오르셨구나<sup>39</sup>

이전에 창흡은 부친을 모시고 유람했던 삼부연에서의 경험을 별도의 세상[有別天]이라고 했었다.<sup>40</sup> 창흡은 삼부연에서의 조부의 시에 공감하면서 그곳에서 진실된 근원을 찾았던 김상헌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상헌은 삼부연이 자리한 곳을 '별건곤'이라고 하였고, 김수증은 '일건곤',

淚澗清溪五曲花”

39 김창흡, 『삼연집』 권1, 「敬次曾王考三釜瀑韻」. “新構茅茨處 秦餘古有村 桃花迷甲子 瀑布界乾坤 積石遊人斷 繁雲老木存 悠悠我先祖 曾一溯眞源”

40 김창흡, 『삼연집』 습유 권1, 「陪遊」. “奉執青藜忽後先 千回渡水訪三淵 松間酌酒無他客 洞裏排雲有別天 到處清湍如淨練 坐時盤石如華筵 迢然世外家人樂 半日徘徊足百年”

김수항은 ‘비건곤’이라고 부르며 아예 ‘도원’이나 ‘진원’이라고 칭했다. 다시 창협은 ‘선원’, 창흡은 ‘유별천’·‘동유천’·‘계건곤’·‘진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김상헌 후손들은 서로 상통하는 의미의 도원지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상헌이 삼부연 시에서 시작된 도원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평범한 마을이었고, 김수항은 ‘갈건에 거친 신발로 남은 생을 보낼 곳[葛巾芒屨送殘年]’이었으며, 김창협에 와서는 뽕나무와 삼을 키우는 마을이었다. 후손들의 시문에서는, 김상헌의 심양 구금과 김수항의 유배를 동일시 하려했던 의도가 읽힌다. 또한, 유배지에서의 산수 유람을 논어에서 말하는 ‘육기영귀’에 이르는 도학의 방법으로 행하고자 하였다.<sup>41</sup>

김상헌 가계에 이어진 ‘삼부연’에 대한 도원 인식은 김수항이 유배를 온 이후에 그 상징성이 뚜렷해졌다. 김수항이 철원으로 이배되기 전인 1671년에도 창협은 철원을 거치는 금강산유람을 다녀왔으나 증조부의 옛 흔적을 찾았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sup>42</sup>

후손들은 김수항의 유배를 고통스럽다고 치부하기보다, 은거의 처신으로 산수와 조화를 이루며 성정을 수양하는 시기로 인식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김상헌이 삼부연에서 도원을 노래했던 시편을 환기하면서, 집안에 담긴 정치적인 수난을 김상헌의 충절과 동등한 반열에 올리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거 이후 다시 나아가기 위한 처세를 준비했을 것이다. 김상헌이 난세에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산수를 도원으로 상정한 것을 계승하여, 후손들은 도를 깨우치는 장소로서의 도원을 직접 경험한 산수에서 찾았던 것이다.

41 고연희, 「육기장(浴沂章)에 대한 이해와 형상화의 전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6호(2016), 404-405쪽 참고.

42 김창협, 『농암집』 권23, 「동유기(東遊記)」 참고.

### Ⅲ. 진경산수에서 구현한 도원관

진경산수화풍의 창시자는 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으로 알려졌다. '진경'을 뜻하는 여러 의미 중에서 '이상향으로서의 진경'이라는 견해는 조선 후기의 사상적 문화적 상황을 강조한 것이기도 한다.<sup>43</sup> 문인들은 산수가 품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성정을 함양하기 위해 산수를 유람하였다. 마음을 수양하면서 흥을 돋우는 '육기영귀'의 태도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선의 집안은 이전부터 김상헌 집안과 교류가 있었으며, 그런 배경에서 정선은 김창협 김창흡 문하에서 수학했을 것으로 알려졌다.<sup>44</sup> 창협과 창흡 형제가 주축이 된 문인 그룹은 백악사단(白岳詞壇)이라고 부르는데, 정선은 백악사단의 문인들과 두루 교유를 했으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한다.<sup>45</sup> 정선과 백악사단의 교유는 백악사단의 '진시(眞詩)운동'이 다른 예술장르와의 교섭을 통해 예술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sup>46</sup> 특히 삼연 김창흡으로부터 시문을 배운 것으로 알려진 정선과

43 박은순(1997), 앞의 책, 81쪽; 박은순은 이 책에서 진경(眞景)과 진경(眞境)의 용어 자체의 의미와 그 유래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18세기 이전까지 선경(仙境)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진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근기 남인의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이라고 하였다. 박은순(1997), 같은 책, 81-83쪽 참조.

44 강관식, 「光州 鄭門과 壯洞 金門의 世交와 謙齋 鄭敼의 <淸風溪>」, 『미술사학보』 제26호(2006) 참조. 정선의 고조부 정연(鄭演, 1541-1621)이 김상헌의 부친 김극효 등 당대 인사들과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정선이 장동 김문의 세거지였던 청풍계 가까이 살았고, 외조부 박자진(朴自振, 1625-1694)은 노론을 형성한 율곡학파의 골수였다. 정선은 외숙부 박견성(朴見聖, 1642-1728)의 후원으로 김창협·창흡 문하를 드나들었다.

45 백악사단은 백악산 아래 김창협과 창흡을 중심으로 모였던 문인들의 문학공간을 의미한다. 백악사단 혹은 농언그룹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백악사단으로 칭했다.

46 김형술, 『白嶽詩壇의 眞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17-18쪽; 고연희, 「17C말 18C초 白嶽祠壇 淸風文學 受容樣相」, 『동방학』 제1권(1996), 89쪽 참조.

창흡의 예술적 공감대는 진경산수 화풍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sup>47</sup> 17세기 후반 백악사단에서는 진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거론되었다. 백악사단의 문인들은, 실지 산수에 나아가 심원한 정신적 교감을 전제로 진시로서의 산수시를 창작하였다. 이처럼 산수를 통해 정신적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은 백악사단 문인들의 일반적 견해였다.<sup>48</sup> 김창협은 시의 창작이 산수의 천기와 닮아있음을 이야기했다.

시의 묘함은 산수와 서로 통한다. 맑고 홀로 높으며 무성하며 기이하고 아름다우며 아득하고 웅장하여 그 모습은 변화가 많고, 그 경계는 다다르기 어렵다. 바라보면 정신이 솟아오르고, 가까이 가면 마음이 융합되니 이것이 산수의 뛰어남이다. 시 또한 그러하므로 이 둘이 마주치면 정신과 기운이 융합하고 경치와 아치를 서로 피워내니, 이는 진실로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sup>49</sup>

정선은 1711년 금강산을 유람하고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을 남겼다.<sup>50</sup> 같은 해에 설악에 거주하던 김창흡도 김시보(金時保, 1658-1734)·정동후(鄭東後, 1659-1735)와 함께 금강산 유람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창

47 고연희는 앞의 책에서 산수기행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문학과 회화를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는 점에서 두 분야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산수기행예술을 살폈다. 이 연구의 기본 전제는 문학과 회화, 폭을 좁히면 김창흡과 정선의 상호작용과 영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48 김형술(2014), 앞의 논문, 123-127쪽 참조.

49 김창협, 『농암집』 권21, 「俞命岳 李夢相 二生東游詩序」. “詩歌之妙 與山水相通 夫清迥峻茂 奇麗幽壯 其爲態多變 其爲境難窮 望之而神聳 卽之而心融 此山水之勝也 而詩歌亦然 故二者相值 而精氣互注焉 景趣交發焉 是固有莫之然而然者矣”

50 《신묘년풍악도첩》은 정선의 기년작(紀年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된 화첩의 화기(畫記)에 의하면, 정선은 백석공(白石公) 신태동(辛泰東, 1659-1729)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하고 수창하였다. 신태동의 후손이 1807년 썼다고 적혀있다.

흡과 정선의 여정을 각각 살펴서 《신묘년풍악도첩》에 있는 그림을 재구성한 연구에 의하면, 총도를 제외한 12점 중에 9점의 여정이 일치하였다.<sup>51</sup> 연구에서는 정선과 김창흡이 유람의 일부 여정을 함께 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정선의 화풍을 분석하였는데, 김창흡과 겹치는 여정을 그린 그림에서, 보다 능숙하고 다채로운 필묵법과 독창적인 구성이 돋보여 진경산수화풍이 더 드러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sup>52</sup> 단기간의 유람 중에 화풍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정선이 다양한 필법을 구사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듬해인 1712년에 있었던 금강산 유람 중에 남긴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시문은 그럴 가능성을 확인해준다.

내 친구 정원백은 주머니에 붓이 없어도  
 때로 흥이 일 때면 내 손 안의 붓을 잡아챌다네  
 금강산에 들어온 뒤 붓을 휘두르며 그리는 게 더욱더 방자해져  
 백옥 같은 만 이천 봉 하나하나 붓질로 헐어버리네<sup>53</sup>

이 시는 1712년 제작된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에 있던 이병연의 시로, 제목이 「안개 속 비로봉을 그리는 정원백을 보며」이다. 금강산에 온 이후 휘두르는 붓질이 매우 방자하다고 한 구절로 봐서 정선의 화풍에 변화가 있음이 짐작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신묘년풍악도첩》에서 보이는 담백하고 섬세한 표현의 필력과는 구별됐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선은 두 번째 금강산 여행에서, 더욱 생동감 있는 산수의 표현방법을

51 이경화, 「정선(鄭勳)의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 1711년 금강산 여행과 진경산수화의 형성」,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11집(2012), 194-198쪽 참조.

52 이경화(2012), 위의 논문, 206-210쪽.

53 이병연, 『槎川詩抄』 권上, 「觀鄭元伯霧中畫毗盧峯」, “吾友鄭元伯 囊中無畫筆 時時畫興發 就我手中奪 自入金剛來 揮灑大放恣 白玉萬二千 一一遭點毀”

모색하여 새로운 필묵법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 얻은 예술적 경험은 정선 특유의 금강산 그림에 보이는 분방한 화법으로 전개되었다.<sup>54</sup> 1712년 《해악전신첩》에 제사를 썼던 김창흡은 정선의 필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1718년의 기록에 의하면 “정선의 그림은 필법과 필묵이 방자하여 천취가 보이는데, 이 필치 또한 아름답다”는 평가가 있다.<sup>55</sup> 1718년 당시 정선은 천취(天趣)가 느껴질 만큼 자유로운 필묵을 구사했음이 추정되며, 1712년 이후 5-6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거듭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sup>56</sup>

정선이 1711년 김창흡과 금강산 여행을 일부 동행하였다면, 김창흡이 추구했던 ‘진시’ 추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리라 보인다. 이후 정선의 화법은 대상의 성격을 포착하는데 주력했던 《신묘년풍악도첩》에서 ‘표현의 묘’에 더욱 힘썼던 《해악전신첩》으로 움직여갔을 것이다.<sup>57</sup> 즉, 처음에는 실재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 대상을 묘사하였지만, 대상이 품은 진면목(眞面目)의 감흥을 그림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정선이 삼부연을 그림으로 남긴 때는 1712년이었다. 금화 현감으로 있던 이병연의 초청으로 두 번째 금강산 여행길에 오른 정선은, 철원에 들러 〈삼부연〉을 그렸다.<sup>58</sup> 이때의 그림은 전해지지 않지만 1747년에 제작된

54 이경화, 「海嶽傳神: 정선의 1712년 금강산도 제작에 관한 재고」,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25집(2020), 108쪽.

55 신돈복(辛敦復, 1692-1779), 『野乘』 21책, 「鶴山閑言」(장서각 소장). “鄭元伯畫在壁上翁睇視良久曰 元伯之寫肆筆揮洒而 見天趣此筆亦佳也”

56 신돈복은 신태동의 족질(族姪)로, 1718년 5월 신태동의 사위였던 박태관(朴太觀, 1678-1719)의 삼청동 집에서 설악산에서 온 김창흡을 만났다. 「학산한언」은 야담집으로 알려졌지만 이 글은 실제로 경험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경종의 비였던 단의빈(端懿嬪)이 1718년 2월 세상을 떠났고 4월에 장례가 있었는데, 김창흡은 服制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숙종실록』 44년(1718) 2월 15일 甲午.

57 유흥준, 『화인열전』 1(역사비평사, 2008), 219쪽.

58 1712년 여행은 이병연의 부친 이숙(李洙, 1647-1761)·동생 이병성(李秉成, 1675-

《해악전신첩》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정선이 묘사한 삼부연을 상상할 수 있다.<sup>59</sup> 《해악전신첩》 제작을 주도했던 이병연은 삼부연이라는 곳이 김상헌이 시를 남긴 곳이며, 김수항의 이배지였고, 스승 김창흡이 시문을 쓰며 은거했던 곳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병연은 삼부연이 지닌 뜻을 담아 남기고자 정선에게 그림을 청했을 것이다. 이병연과 정선이 인식했던 삼부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산수가 아니라, 정치적 역경을 피하여 자연의 섭리를 깨치며 살아가는 장소였고, 세상에 나아가 도를 실현하기 위한 은거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했다.

정선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느꼈던 감흥을, 선과 면을 이루는 붓질로 표현하였다. 한반도의 바위와 흙과 수목이 만들어내는 질감을 보이는 대로 묘사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생명감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 암산은 내리꽂히는 수직으로 표현하였고, 암벽은 도끼날로 두툼하게 치면서 먹빛을 쌓아 암산이 품은 오랜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토산은 붓을 누어 따스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나무의 잎사귀는 짙은 먹을 가로로 슬쩍 눌러 푸르고 싱싱한 생명력을 강조하였다. 조선의 산수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바위와 흙, 나무와 풀, 집과 사람을 정선 특유의 다양한 시선으로 재현한 것이다.

창협과 창흡의 문인들은 산수 유람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성을 인식하고 구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문인사회에서 정선의 금강산 그림을 보는 가장 눈에 띄는 시선은, 산수의 전신(傳神) 즉 금강산의 본질을 표출하는데

---

1735) 그리고 장응두(張應斗, 1670-1729)가 함께 하였다. 정선의 그림 30폭을 얻게 된 이병연은 김창흡과 조유수(趙裕壽, 1663-1741), 이하곤(李夏坤, 1677-1724) 등 문인들의 시문을 받아 《해악전신첩》을 엮었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59 현전하는 《해악전신첩》의 〈삼부연〉은 정선이 1747년경에 그린 그림이며, 김창흡의 제사(題詞)와 이병연의 시는 1712년에 쓴 것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sup>60</sup> 정선에게 있어서, 그림의 최종 목표는 대상의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 내면적인 특징을 잘 표출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정선 특유의 개성적 표현과 기법이 나올 수 있었다.<sup>61</sup> 즉, 대상의 변형과 과장을 통해 본성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진경산수 화풍을 만들었다. 인성과 물성이 본연의 성을 회복하고 도를 구현하는 처소를 '도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경산수 유람은 실재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 떠나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

16세기에 시작된 「무이도가」 제9곡 시의 도원에 관한 담론에서, 서인계 문인들은 평범한 인간 세상이야말로 별천지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현 가능한 현실에 도원을 두었다. 김상헌은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아름다운 산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마을을 별건곤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살아가는 산수 속에 도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김상헌의 도원 인식은 손자인 수증·수항을 거쳐 증손인 창협·창흡에게 이어졌다. 후손들은 김상헌의 행적을 환기하면서 시를 차운하는 등 지속적으로 김상헌의 도원 인식을 존송하였다. 특히 김수항이 철원으로 이배를 온 뒤, 창흡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철원의 삼부연은, 그 장소적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 김상헌 가계의 문인들은 '별건곤'·'비건곤'·'유별천' 등으로 적절히 변용하며 경험한 산수를 노래함으로써, 실재하는 땅에서 도원을

---

60 이경화(2020), 앞의 논문, 119쪽.

61 정은주(2014), 앞의 논문, 136쪽.



찾으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창흡이 송시열·이단하·박세채와 ‘별유천’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은 주목되는데, 서인 노론계 문인 중에서도 김상헌의 후손들이 도원에 대한 관심과 담론 의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이 난세에 평범하게 살아갈만한 현실의 산수를 도원으로 상징했다면, 후손들은 평범한 일상의 거처에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수양처라는 인식을 더하면서 출처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상헌의 후손들이 ‘삼부연’에 부친 시문에서 드러낸 도원관을 중심으로 정선의 진경산수화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진경산수화풍을 창시한 겸재 정선은 창협·창흡이 주도했던 진시론의 영향을 받았고, 김상헌 가계의 도원관 역시 반영되었을 것을 추정하였다. 장동 김문의 문하에 드나들었으며 백악사단의 문인들과 교류했던 정선은 김상헌의 후손들이 지닌 도원관과 진시론을 자연스럽게 학습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선이 금강산을 유람했던 1711년과 1712년의 경험은 진경산수화풍을 창출하는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김상헌 가계 문인들이 생각했던 평범한 인간 세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산수로 표현되었고, 수양처로서의 인식은 시와 그림으로 묘사된 사물의 본성으로 표현되었다고 이해된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는 사회적으로 우리 산수에 대한 지향이 충만했으며, 문화적으로는 산천의 아름다움을 시로 노래하고 그림으로 남기는 산수기행이 유행했던 시기였다. 문인들의 도원관은 산수기행의 문화와 어우러져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에 영향을 주었다. 정선이 창시한 진경산수는 현실에서 찾은 도원이며, 김상헌 후손들이 주장했던 진경의 구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김상헌 가계로 이어진 도원관은 사상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진경산수화풍의 형성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肅宗實錄』.  
具思孟, 『八谷集』.  
金尙憲, 『淸陰集』.  
金壽增, 『谷雲集』.  
金壽恒, 『文谷集』.  
金長生, 『沙溪全書』.  
金昌協, 『農巖集』.  
金昌翁, 『三淵集』.  
朴世采, 『南溪集』.  
辛敦復, 『鶴山閑言』.  
李珥, 『栗谷全書』.  
李滉, 『退溪集』.  
朱熹, 『朱子全書』.

### 2. 단행본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1.  
박은순, 『金剛山圖 硏究』. 일지사, 1997.  
유홍준, 『화인열전』 1. 역사비평사, 2008.  
이태호, 『조선후기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최완수, 『겸재정선 진경산수화』. 범우사, 1993.  
\_\_\_\_\_, 『진경시대』 1·2. 돌베개, 2003.

### 3. 논문

- 강관식, 「光州 鄭門과 壯洞金門의 世交와 謙齋 鄭澈의 〈淸風溪〉」. 『미술사학보』 제26호, 2006, 119-147쪽.  
강영순, 「산수자연에 대한 즐거움 연구: 曾點의 “浴沂詠歸”를 중심으로」. 『미학』 제79권, 2014, 1-28쪽.  
강정서,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동방한문학』 제17집, 1999, 19-30쪽.

- 고연희, 「몽유도원도 제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_\_\_\_\_, 「겸재 정선, 그 명성의 근거 검토」. 『대동문화연구』 제109호, 2000, 7-32쪽.
- \_\_\_\_\_, 「浴沂章에 대한 이해와 형상화의 전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6호, 2016, 397-422쪽.
- 김영봉, 「조선조 武夷權歌에 대한 평가와 次韻詩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62호, 2018, 135-165쪽
- 김은미, 「몽유도원도 제찬의 도원관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0호, 1988, 489-510쪽.
- 김준태, 『포저 조익의 성리학설과 경세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풍기, 「『高山九曲歌』에 나타난 이상향의 의미: 주자의 「무이도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울곡학연구』 제29집, 2014, 225-252쪽.
- 김형술, 『白嶽詩壇의 眞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은순, 「朝鮮 後期 官僚文化와 眞景山水畫: 소론계 관료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제27호, 2013, 88-119쪽.
- 신동섭, 「조선후기 명승에 대한 사실적 인식의 발전: 장동 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신두환, 「조선 士人의 「武夷權歌」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大東漢文學』 제27집, 2007, 217-252쪽.
- 심경호, 「朱子 『齊居感興詩』와 『武夷權歌』의 조선관본」. 『서지학보』 제14집, 1994, 3-36쪽.
- 안휘준, 「겸재 정선(1676-1759)과 그의 진경산수화,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학보』 제214호, 2012, 1-30쪽.
- 유준영, 「谷雲九曲圖를 중심으로 본 17세기 實景圖發展의 一例」. 『한국학』 제3호, 1980, 38-46쪽.
-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경화, 「鄭敼의 《辛卯年楓嶽圖帖》: 1711년 금강산 여행과 진경산수화의 형성」.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11호, 2012, 192-225쪽.
- \_\_\_\_\_, 「海嶽傳神: 정선의 1712년 금강산도 제작에 관한 재고」.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25호, 2020, 100-131쪽.
- 이민홍, 「『武夷權歌』 수용을 통해 본 士林派文學의 一樣相: 退溪, 河西, 高峯을 중심으로

- 로」. 『韓國漢文學研究』 제6집, 1982, 25-44쪽.
- 임희숙, 『조선 중기 문인들의 회화관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정은주, 「겸재 정선의 신분과 화풍 형성에 대한 소고」. 『예술논집』 제14호,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14, 123-148쪽.
- 조민환, 「증점의 '육기영귀'에 대한 조선조 유학자들의 견해와 수용」. 『동양예술』 제47권, 2020, 5-30쪽.
- 최석기, 「무이도가 수용양상 및 도산구곡시의 성향」. 『퇴계학논총』 제23권, 2014, 87-115쪽.
- 허용, 「朝鮮時代 桃源圖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홍선표, 「〈몽유도원도〉의 창작세계: 선경의 재현과 고전산수화의 확립」. 『미술사논단』 제31호, 2010, 29-54쪽.

## 국문초록

이 글은 김상헌(金尙憲) 가계에 이어져 온 도원관(桃源觀)을 살펴보고, 겸재(謙齋) 정선(鄭敼)이 창시한 진경산수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피고자 하는 연구이다.

김상헌은 철원의 삼부연(三釜淵)에서 도원을 떠올리며 시를 썼는데, 후손들은 삼부연을 방문할 때마다 도원과 관련된 시문을 남겼다. 후손인 김수증과 수항 그리고 창협과 창흙의 시문 중에서 삼부연과 관련되었거나 도원 또는 별천지(別天地)를 의미하는 시어(詩語)를 찾아 그들의 도원관을 살펴보았다. 후손들은 시문에서 선조인 김상헌을 기억하면서 도원 인식을 강조하며 계승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그들은 아름다운 산수를 만날 때는 '별건곤(別乾坤)', '비건곤(秘乾坤)', '유별천(有別天)', '동유천(洞有天)', '선원(仙源)', '진원(眞源)'으로 부르며 현실에서 도원을 찾으려 하였다.

김창협과 창흙은 17세기 '백악사단'으로 불리는 문인들과 더불어 진산수(眞山水)와 진시(眞詩)의 정신을 공감하며 새로운 문예의식을 만들었다. 당시, 겸재 정선은 백악사단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진경산수화풍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화풍을 창시하였다. 진경산수화는 사물의 내면에 있는 본질을 찾아내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김상헌 가계의 현실적 도원관이 반영되어, 이 땅의 산수에서 진면목을 찾으려 했던 화가의 예술의지가 발현하여 구현된 화풍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김상헌 가계의 도원관은 정선이 창시한 진경산수화의 화풍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21. 3. 3.

심사일 2021. 3. 5.

게재 확정일 2021. 8. 6.

주제어(keyword) 도원관(Dowongwan), 김상헌(Kim Sang-Heon), 장동 김문(Jangdong Kim's Family) 진경산수(True-View Landscape), 겸재(Gyeom-Jae), 정선(Jeong Seon)

## Abstract

###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True-View Landscape and View of Utopia in Cheong-eum Kim Sang-heon Family Lim, hee-sook

This article is about a study to examine Dowongwan(桃源觀, View of Utopia), which has been transmitted by Cheong-eum Kim Sang-heon's Family and to see how it is related to True-view Landscape painting founded by Gyeom-jae(謙齋) Jeong Seon(鄭叡).

Kim Sang-heon was a literati of the Seo-in group which recognized that Dowon exists in the reality that people had encountered. Sambuyeon(三釜淵) is a waterfall in Cheorwon(鐵原), where Kim Sang-heon wrote a poem about Dowon, furthermore his grandson Kim Soo-hang's place of exile, thus several descendants left poetry works about Sambuyeon. The research tried to understand Dowongwan with the poetry works of Kim Su-jeung, Su-hang, Chang-hyeop and Chang-heup who were main literati of Kim Sang-heon's Family, by finding words related to Sambuyeon and those which meant Dowon or Byeolgeonji(別天地). In the poetry about Sambuyeon, stance on emphasis and transmission of the recognition on Dowon that their ancestor Kim Sang-heon had shown was expressed with commemoration and admiration for him.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they met beautiful landscapes, they tried to find a realistic Dowon by calling them Byeolgeongon(別乾坤), Bigeongon(祕乾坤), Yubyeolcheon(有別天), Seonwon(仙源), Dongyucheon(洞有天), and Jinwon(眞源).

Kim Chang-hyeop and Chang-heup created a new literary consciousness, sympathizing with the spirits of Jinsansu(眞山水) and Jinshi(眞詩), along with a group of literati called 'Baekaksadan(白岳詞壇)' in the 17th century. At that time, Gyeom-jae Jeong Seon established a new style of painting by interacting with the literati of the Baekaksadan, and it is called the "True-view Landscape painting style(眞景山水畫風)". True-view Landscape painting could be an art form that finds the intrinsic nature of things and shows it visually. That is, Jeong Seon's True-view Landscape painting expressed a space that was resulted by the realistic Dowongwan of the Kim Sang-heon Family, and it was a style that was embodied by the artist's artistic will to find true characters in the landscape of this land.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Dowongwan of the Kim Sang-heon's Family also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rue-view Landscape painting style.

